

동신교회의 농어촌 선교활동

강 동 수(목사, 서울 동신교회)

『농촌과 목회』의 편집자로부터 동신교회가 해오고 있는 농어촌 선교활동을 글로 정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금은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이렇다 할 특징적 활동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를 사양하였으나 있는 그대로를 정리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순종하기로 하였다.

동신교회의 대외선교 활동(재정적 지원을 포함한)은 크게 네 분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첫째는 총회나 노회 등의 선교활동과 연합 사업을 돕는 일이다. 둘째는 해외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거나 해외 선교사업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다. 셋째는 교회가 속해 있는 구청과 경찰서, 그리고 관할 내의 각 동회와 협력하여 인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신자나 불신자를 불문하고 소외된 계층을 돕고 지역사회 개발에 협력하는 일이다. 넷째는 농어촌 선교활동을 돕는 일에 재정과 인력봉사로 활동하는 일이다. 상기 네 분야에 할당된 예산은 교회 전체 일년 예산의 17%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이것이 동신교회의 대외적 사용되는 예산의 전체액수이다.

1. 국내 선교부의 농어촌 교회 돕기

동신교회의 국내선교부는 재직회 23개 부서 중의 한 부서이다. 이 부서 안에 부장과 차장, 그리고 부원이 있고, 또한 실행위원회가 있어서 매월 일회 정기 모임을 갖고 업무를 추진한다. 이 자리에서 한 달간의 업무를 보고하고 점검하며 차질 없이 선교사역을 수행해 나간다. 국내선교부에서는 교단 총회에 속한 선교기관과 그 외 일반 선교단체를 정기적으로 돕는 일 이외에 학원선교와 대외 사업을 부분적으로 돕는다. 그리고 전국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교회를 돕는 일은 국내선교부에 속해 있는 연령별로 나누어진 남·여전도회에서 맡아한다. 남·여전도회에서는 각 회의 형편에 따라 많게는 하나의 회가 9개의 미자립 교회를 적게는 2개 정도의 미자립 교회를 맡아서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때로는 방문하고 필요할 때 농촌 일손돕기를 통해 도·농교회의 협력을 도모함으로 선교봉사활동을 통해 농어촌교회와 더불어 끈끈한 사랑의 유대를 이어오고 있다. 남·여전도회가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과 이에 대한 행정적인 것과 정책적인 것은 교역자실이 국내선교부를 통해 지도하고 협력하는 형편이다.

2. 농어촌 선교정책

필자가 지방의 모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할 때의 일이다. 그 교회로부터 매월 지원금을 받고 있는 미자립 농어촌교회 교역자들이 지원금 수령차 매월 일정한 날짜와 시간에 모인다고 하였다. 이때 필자가 인사차 그 교역자들이 모인 방에 들어갔다. 거기에는 20여 명의 농어촌 미자립교회 교역자들이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찍이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필자의 선배와 후배도 있었고, 그리고 이미 안면이 있는 이들도 더러 있었다. 함께 공부하였던 동역자들이 이제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로 만나게

될 때 참으로 어색하기 그지없고 마음 아픔을 금할 수가 없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을 지원 받는 그들의 얼굴 표정과 주는 자의 표정은 서로 “이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였다. 그리하여 필자는 동역자들에게 지원금 때문에 교회로 오지 않도록 매월 교회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송금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다. 그 날 이후로 필자는 누가 지원을 받는 교역자이며 교회인가를, 그리고 월 얼마나 지원 받는가를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받는 이도 비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받고, 주는 이도 하나님의 것을 겸손하게 전달해야겠다는 마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라도 주고받는 일에 물질을 주고받는 상업주의적 교환관계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동신교회 국내선교부에서 농어촌 교회를 선정하면 일차적으로 3년 동안 보조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조하는 일을 시작 할 때 3년 만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 이유는 자립정신을 함양하고 그 계획을 자체 수립하게 함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지원하는 교회와의 종속관계를 갖지 않게 함이다. 일정한 교회를 장기적으로 지원함으로 갖게되는 좋은 일도 많지만, 의존관계와 종속관계는 객관성을 가지 못하게 하고 자체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3년을 지나고 난 후에도 지원 관계를 단절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한다. 이와 같은 형편을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일년에 한번은 지원 단체의 임원 몇 사람이 돕고 있는 농어촌교회를 방문한다. 농어촌 교회를 방문함으로 서로를 살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애를 확인하고 또한 도시와 농촌교회와의 목회적 교류사역이 훌륭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본 교회 청년들을 보내어 농촌 일손 돕기와 농촌봉사를 통해 지원 교회를 돕고 또 전도사역을 수행하기도 한다.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을 의논할 때면 언제나 몇 가지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 첫째는 본 교회 내에도 해야 할 일이 많고 지원해야 할 기관이 많은데 굳이 외부에 지원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 다

음은 본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 내에도 미자립 교회가 자립교회 수보다 더 많은데 지방의 농어촌까지 손을 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같은 문제는 해외선교문제와도 같은 맥락에서 읽혀진다. 국내에도 얼마든지 도움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많고, 선교가 요구되는 곳도 많은데 그 많은 재정을 해외로 보낼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나 국내외선교활동은 반드시 그들만을 위하여서 하는 것은 아니라 이러한 선교봉사활동은 교회 내의 영적 성장과 믿음의 열정을 보다 훌륭하게 함양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3. 한국 농어촌 선교활동의 과제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교회 개척의사가 있으면 반드시 선교계획서(Mission design)를 해당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 계획서 안에는 주변의 선교환경과 앞으로 5년 간의 전도정책 내지는 계획, 그리고 재정계획까지 포함한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첫 해에는 외부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재정지원을 받으나 매해 받는 액수가 줄어들어 적어도 5년 후에는 자립 할 수 있어야 노회가 재정지원과 함께 이를 승인한다. 노회의 승인 하에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면 노회는 매월 이를 감독하고 격려하며 계획대로 수행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그리고 예상외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노회는 함께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협력한다. 따라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사전조사와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회는 개척교회 시작부터 해당교회로 하여금 노회를 통하여 또 다른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를 돕도록 지도한다. 그리하여야 그 교회가 성장하고 난 후에도 노회가 추진하는 선교사역에 동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외부의 선교사업에 동참하는 훈련을 받는 셈이 된다. 새롭게 시작되는 농어촌 교회가 처음 계획대로 5년 후에 재정적으

로 자립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 반대로 계속 지원을 받아야 하고 때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립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교회도 있다. 그 때는 노회가 소형교회의 목회자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역들을 맡긴다. 예를 들면, 한 교역자가 인접한 소형교회와 두 교회 목회를 하게 한다든지, 또는 노회 사무실에 일주일에 몇 일 동안 출근하여 노회 사무업무를 돕게 한다든지, 혹은 인접지역교회의 전도 운동에 동참하여 봉사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노회가 개발하여 실시한다. 그 반면에 교역자의 생활에 대한 책임은 노회가 진다. 일단 노회의 정회원이 되어 노회 산하에서 노회의 지시에 따라 선교사역에 동참하게 되면, 그 회원의 일상생활에 최저임금을 노회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아무리 개척교회 내지는 미자립교회의 교역자라 할지라도 그 개인이 어느 교회나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재정이 필요할 경우 노회가 능력있는 교회에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이와 같은 농어촌 미자립 교회 정책이 총회적으로 정립이 되면 신학교의 난립문제나 교역자의 양산과 수급문제 또는 교역자들이 능력있는 교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원을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선교정책수립과 정립은 빠른 시일 내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선교마인드를 가지고 총회 차원에서 국내선교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또한 좀 더 객관성 있고 미래지향적이며,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국내 선교 선교정책이 바르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총회적으로 만사(萬四)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같이 세워지는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자립할 뿐 아니라, 사회와 세계에 복음으로 봉사하는 교회로 성장시켜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농어촌 교회 목회경험이 전무한 필자가 농어촌 교회 선교에 대하여 글을 쓴다는 것이 못마땅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동신교회가 미약하나마 농어촌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적은 재정이나마 돕고 있다는 마음에서 줄필을 남긴다. 아울러 기독교 선진국 교단에서는 미자립 농어촌교회 선교정책이 어떠한지를 작은 경험에서 얻은 지식으로 함께 나누었다. 모쪼록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정기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독자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시는 사역 위에 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탁드릴 말씀은 정기구독료 납부에 관한 일입니다. 정기구독 신청하신 지 1년이 지난 분들은 다시 구독료를 납부하셔야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로용지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온라인(계좌번호는 책 뒤 속표지에 있음)으로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